"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노회 화합과 연합에 역량 집중"

■ 제138회기 전남노회장 송인동 장로(광주양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남노회 제138회 1차 정기회가 지난 10월 22일(목) 오전 9시 월광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날 노회장에 선출된 송인동 장로(광주양림교회)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남노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며 "중책을 맡겨주신 노회원들을 겸손히 섬기고 경청하며 전남노회가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작한 제138회기 임원들과 각종 업무 준비와 회의로 바쁜 송인동 노회장을 지난 4일(수) 오후 3시 전남노회 회관 1층 노회장실에서 만났다.

조금 일찍 도착해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임원들과 관련된 노회원들이 분주히 드나들며 각종 시역준비로 북적이는 모습에서 새로 시작하는 회기의 활기와 역동성이 느껴졌다.

평소와 다름없이 겸손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송인동 노회장이 두 손을 맞잡고 맞아주었다. 그에게 제138회기 전남노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물었다.

/대담=박현주 본지 발행인



▲ 제138회 전남노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포부는?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남노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책을 맡겨 주신 노회원들을 겸손히 섬기고 경청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전남노회가 화합과 연합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회기 노회의 최대 현안 과제는?

문명사적인 격변기인 오늘을 살아가면서 전남노회의 교회들도 복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111회 총회 주제를 품고, 우리 전남노회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서로 동행하고 서로 세워주는 노회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향후 5년이면, 전남노회만 하여도 90명의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가올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목회자들의 복지와 목회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신학대학교와의 협력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겠습니다.

▲ 노회장이 되면 이 일만큼은 꼭 이루겠다고 생각해오신 사업이나 목표가 있다면?

2027년은 전남광주 선교 개척, 곧 전남광주에 복음 선교사의 상주 선교가 시작된 지 130주년이 됩니다. 전남광주 선교 개척 130주년에 즈음하여, 문명사적인 격변기 속에서도 전남노회의 교회들이 다시 그 선교 개척자의 사랑과 믿음의 길을 따라, 함께 손잡고 어려운 시대를 복음으로 이겨내도록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 노회의 전반적인 활성화와 동반성장교회의 어려움을 타개할 대안 혹은 정책은 무엇인지?

묵묵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목회자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한 교회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품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노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전남노회 교회들을 순방하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지혜와 마음을 경청하고자 그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순례를 통하여 교회와 노회의 연결이 더욱 튼실하여지고 이를 통해 동반목회지원 대상 교회들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장로로서 전남노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시면서 특별히 노회발전과 화합을 위해 적용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온 '광주 근대 역사문화 마을 양림'의 조성을 위해 교파와 단체들의 경계를 넘어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 마음을 모았던 경험을 살려서, 전남노회의 교회들과 기관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노회와 교회가 AI의 알고리즘에 함몰되지 않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사역들과 콘텐츠, 성도들의 전문성 등을 노회 차원에서 연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열매가 전도와 선교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전남광주 선교 130주년, 복음 이어갈 다음세대 리더십 세울 것
목회자 AI격차 심해…대학 · 연구소 등과 더불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상
향후 5년 내 목회자 90여 명 은퇴, 노회 어려움 가중…다양한 활로 모색

11월부터 노회 내 교회들 순방...동반 목회지원 교회들 힘 얻는 계기 되도록

▲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교 개척 시기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140여 년 전 이수정 선생의 성경 번역과 선교사 요청, 130년 전 유진 벨 선교사님의 전남 선교 개척처럼,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복음의 순수함과 섬김의 자세로 섬겼기에 복음이 이 땅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수정 선생은 당시 사회 약자인 여성들을 생각하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유진 벨 선교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선교사들을 관대히 품었기 때문에 전남광주 지역에 복음에 기초한 희생과 섬김의 다채로운 사역들이 가능하였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품고 섬길 때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들을 넘어서 SNS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 시대에, 어느 교회든 콘텐츠의 잠재력이 있기에 이러한 잠재력을 노회 차원에서 발굴하고 연결하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준비가 진행 중인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을 비롯하여, 품격 있는 교회 역사 문화 콘텐츠 사역, 곧 교회의 따뜻한 심장이 지역사회에 전해지는 콘텐츠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교회들과 연대하겠습니다.

▲ 전남노회에서 오랫동안 섬겨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노회원들과 많은 접촉을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노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노회 목사님, 장로님! 우리 전남노회는 전남광주 지역의 노회들의 모태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선교 개척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합니다. 복음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눈물과 땀으로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열정을 다시 품어야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성령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제138회기에도 전남노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룩한 노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노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남노회 제138회 정기회 임원선거 모습.


제138회임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송인동 노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제138회 임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기관위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전남노회 제138회 임원들은 노회와 총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 제138회 임원 일동

노회장 송인동 장로 광주양림교회

목사 부노회장 김양수 목사 신원벧엘교회

장로 부노회장 장기영 장로 광주다일교회

서기 고재환 목사 한소망교회

부서기 오주호 목사 금천선교교회

회록서기 조규성 목사 서광주교회

부회록서기 서성기 목사 주사랑교회

회계 황대연 장로 상무무등교회

부회계 문영태 장로 옥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노회장 송인동 장로 서기 고재환 목사 우)61499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29(소태동) FAX 062)232-0024